

방송 단신

불교 TV 개국 특집 '달마가...'美서 제작

불교텔레비전은 내년 3월 1일 개국을 앞두고 특집다큐멘터리 '일본속의 한국불교'에 이어 특집 다큐멘터리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도 미국 현지 제작 중이다.

지난 24일 출국한 bfn의 김대우PD, 김원근 카메라맨, 이수남 오디오맨은 미국 불교전래 100주년에 맞춰 미국 이민 불교의 역사와 미국에서 불교가 독자적으로 대중화되어 가는 모습을 찾아 한달간의 일정으로 현지제작 되고 있다.

이 제작팀은 동양과 서양이 접점을 이루는 하와이의 최초 사찰 흥인사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주요사찰 탐사, 관음 사상을 비롯, 태극, 스리랑가계 사찰을 탐방 취재한다.

또 전자불전연구소, 스키즈센터, 미주한국방송, 흑인불교회 등 주요 기관을 방문 취재하고 루이빌, 캠퍼 파타리교수 등 미국의 주요 석학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이민 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 본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50분을 총3부작으로 구성됐다. 제1부 '동양에서 온 전법자'를 제2부 '뿌린 눈의 싹' 제3부 '발원이 썩는 땅'의 내용으로 거대한 불교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미국 불교를 직접 확인취재의 형식으로 구성, 방영된다.

은평구에 대규모 종합복지관 건립

성운스님, 복지법인 인덕원 설립 추진

최근 청소년회관, 체육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들이 특정종교에 일방적으로 위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이 11월 4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대규모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는 수행을 현실과 접목시키는 실천행입니다만 불교는 그동안 사회복지에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의에 마련한 1천8백평 대지에 우선 64명 수용의 대규모 보육원을 자율 계획으로 오는 연말 기공식을 갖는다.

또한 진관동에 있는 5백여평에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건립 허가 가 나는데로 기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다.

스님의 종합복지에 대한 계획은 장대하다. 은평구에 종합 복지관을 만들어 아동·청소년·노인 가정·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며 불멸도 포교하겠다는 것.



성운스님

노인세대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스님은 불광동에 불우 노인을 위한 무료병원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교가 위탁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은 11개 인지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미흡합니다. 조계종 교구별로 24개인 만큼 교구별로 종합복지관을 하나씩 운영해 사회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얼마나 효로할까요? 지역 주민

들이 불교적 심성에서 산다면 자연스럽게 포교도 되고 복지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재소자 교화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성운스님은 어린 이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육원 건립에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 품안에서 뛰놀던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불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은평구 각 동별로 10~1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유치원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남은 생을 사회복지로 회향하겠다는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무리 이념과 취지가 수순해도 실천이 없는 종교가 인간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역설하는 성운스님은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내년 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구미한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총무원 신설부서 무슨 일 하나

교육원

이번 조계종 개혁이 있어 승가교육 문제만큼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논의된 분야도 없을 만큼 승가교육에 대한 자체 분석과 연구가 여러차례 이뤄졌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교육원'의 신설이다.

승가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의 체계적 교육이아말로 종단 발전의 초석임이 공감대로 형성된 교육원설립의 전담기구인 교육원은 산하에 교육부와 불학연구소 및 교육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 산하에 총무원 교육국 연수국을 두어 해당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문화사회부

신설 문화사회부 산하 문화국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화부'의 단독 신설보다는 미흡하지만 문화전담기구 설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문화국의 주요사업 중 하나는 불교문화재의 관리와 보존 그리고 정확한 실태조사이다. 각종 불교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문화 단체 및 관계자 관리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국은 산하에 자원위원회 비서부 운영·무형 문화재 문화교육과 자료실로 구성된다.

자원위원회는 문화재전문가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 사안에 따른 각종 자문을 구하여 현실 업무에 활용시킨다. 또한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문화재 등록대장을 정비하고 이를 전산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문화국은 불교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자교육원과 승가대학을 의무화함에 따라 출가행자는 의무적으로 행자교육원(기초교육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 업무별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승가대학은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니)를 대상으로 수도권에 1개소(중앙승가대학) 지방사찰에 수개소(지방

하고 불학연구소는 석학, 율학, 교학을 연구하여 교학연구의 체계화와 발전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재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 불교문화·미술·음악·연극 등 전문분야교육과 보육교사 양성에 필요한 특수학교 등의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불학연구소 설치, 법제고시 실시

승가대학)를 두는 기본무교육기관으로 이를 이수하여 어떤 정식으로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교육국에서 전담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인 화원승가대학원 율원 신학원수원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

등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또 종단장학생 선발 등 법적합의를 위한 승가고시를 실시한다.

교육원장은 통도사 강주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원상스님이 맡고있다.

을 책정하고 있다. 이중 성보 문화재조사비 및 관리비로 4천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구만 채워져지고 유산회가는 성보문화재를 종단에서 적극 관리해 보자는 뜻으로 문화비 예산의 70%를 책정한 것으로 문화국은 문화재에

대안 교육에 더욱 역점을 두고, 불교문화의 대중화, 국제화 등에 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국에 대한 교계의 주문이다.

조계종 신년예산을 보면 문화비 예산으로 6천7백만원

문화·예술 포교의 전인차 역할

를 추진한다. 문화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후원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교육과는 문화관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승 재가들 막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신년예산을 보면 문화비 예산으로 6천7백만원

해외통신

세계 유산 4백곳 컴퓨터이용 복원

안코르와트 등 세계적 문화유산 4백여곳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원형대로 보존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문화국은 최근 각국의 협력을 얻어 '문화유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개설했다. 이 개발은 최첨단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한 세계 유산의 복원과 우주 고고학을 전담하는 기구.

이 개발은 3차원 입체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안코르와트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복원을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복원할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한 4백11곳의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환경채택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이 작업의 1차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석굴암, 종묘, 팔만대장경판 등 3곳을 세계문화유산 지정대상으로 신청해 온 상태다.

神道, 어원 한국이나 중국 오오사카 여대학장 주장

上田正昭 오오사카여대대학원장이 신도의 어원이 중국이나 한국의 교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민간신앙인 '신도'는 일본서기에 나오는데 일본 독자의 용어가 아니라란 점을 밝힌 것이다.

신도란 용어의 유래는 불교의 육도사상을 전거로 한다는 설과 도교의 전래에 의거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실제 주역에선 '자연의 이법'을 의미하는 '신도'란 말의 용례가 있고, <진서(晉書)>에서는 도가의 도를 '신도'라 지칭했다. <후한서> 등에서는 각종의 주문이나 방술, 선술을 의미하는 용례가 있다.

신사(神社)란 말도 <국사>에 보이고, 신공(神宮)이란 말도 <시경>에 보인다.

한국의 <삼국사기>의 제사지(祭地)에는 지증왕대(500-513)에 나용(奈乙)에 '신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 분기에도 소지왕 9년(487) 무렵에 '신공을 나용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계간 '일본불교' 창간

일본 서적 전문 출판업체인 법정출판(法藏館)은 계간(일본불교)을 11월 22일 창간했다. 이 잡지는 일본불교가 학문적으로만 연구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됐다. A5 판형, 정가 2천4백원.

남해분사도감 집중운영 K-TV '일연과...'방영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과 남해분사도감의 관계를 집중조명하는 '일연과 남해분사도감'이 KBS TV '한국의 재발견'을 통해 오는 15일 밤 10시부터 45분간 방영된다.

이 프로의 제작을 위해 제작팀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연스님과 관련된 인각사, 운문사 해인사등의 행적지를 취재하고 있다. 제작진이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일연스님과 남해 분사도감의 유기적 관련을 조명, 일연이 판관 대장경 제작을 고려 중기의 역사를 보는데 핵심 인물임을 규명하고 남해분사도감의 터가 어디인지 추적해 보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고 밝힌다.

KBS의 이번 프로그램은 일연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판관 대장경의 탄생지인 남해 분사도감이 갖는 연관성에 따른 화자들의 관심을 새롭게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종단발전 특별위 구성

태고종 중앙총회 연구·복지사업에 역점 뒤

한국불교태고종 제69회 정기 중앙총회(총회회장 신복산)가 지난 29일 태고종 총무원 설립 전에서 열려 95년도 사업계획,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의 통과시키고 중법기초 위원회와 종단발전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했다.

총회의원 38명과 종단 각급 기관장 및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통과된 95년도 종단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종단의 체질개선, 총무원 임직원 정예화, 전문종무기관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종단조직정비, 종단 중장기 사업계획수립, 종승연구사업, 승려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종단 사업의 적극추진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종단법안개편과 관련 종단법안관리비 및 사찰법 제정을 위한 중법기

초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었다. 이와함께 21세기를 대비한 태고종단의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키위한 종단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종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총무원장, 총회의장, 사정위원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게 되며 내년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3월 중앙총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종단개혁사업을 추진하게된다.

상월원각 탄신대제 천태종 30일 구인사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오는 30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83주년을 맞아 총본산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법요'를 봉행한다. 천태종은 이에 앞서 29일 오후 5시 탄신잔야제를 갖고 봉

축등 점등식등 다채로운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목동회관 운영 정상 언론 보도 잘못

서울시립목동청소년회관(관장 이광우)은 지난달 23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청소년회관"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해 나갔다.

목동청소년회관은 11월 22일 시의회 이사회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대해 조선일보에서 이를 사실확인없이 기사화해 마치 목동회관이 파행 운영되는 타기관과 같이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역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문화센터, 기독교 문화센터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문화센터와 비교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고려, 수강료

btm 불교 기획 사업팀 창설

영상소프트·이벤트에 주력

종합영상매체의 성장에 기대는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용)이 기획사업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교영상 프로덕션의 모체가 될 이 기획사업팀은 12월 10일경 창설되고, btm 경영관리국과는 별도의 행정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팀은 경력 카메라맨 5명의 촬영팀에 의해 영상소프트 및 이벤트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방송용으로 제작 중인 '한국명찰순례'에 내용을 더 보강해 만들 예정인 '불교' 비디오, 불교계 실업인들의 기업홍보 CF를 등의 영상소프트를 주문제작해 수익사업에 힘쓰고 있다.

불교TV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획사업팀

창설계획을 밝히고 불교TV의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화

를 추진한다. 문화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후원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교육과는 문화관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승 재가들 막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신년예산을 보면 문화비 예산으로 6천7백만원

불교 기획 사업팀 창설

영상소프트·이벤트에 주력

종합영상매체의 성장에 기대는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용)이 기획사업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교영상 프로덕션의 모체가 될 이 기획사업팀은 12월 10일경 창설되고, btm 경영관리국과는 별도의 행정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팀은 경력 카메라맨 5명의 촬영팀에 의해 영상소프트 및 이벤트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방송용으로 제작 중인 '한국명찰순례'에 내용을 더 보강해 만들 예정인 '불교' 비디오, 불교계 실업인들의 기업홍보 CF를 등의 영상소프트를 주문제작해 수익사업에 힘쓰고 있다.

불교TV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획사업팀

양념의 옛말은 '약념(藥念)입니다.
약으로 알고 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치 속의 양념들은 하나 같이 藥 중의 藥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역사가 시작된 뒤로 이보다 더 좋은 소금은 없었습니다. 인산 김일환(1909~1992) 선생이 개발한 신비의 소금 인산염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사해인 굽은 소금을 원대나무통 속에 넣고 지리산 기슭 황토로 불린 다음 송진불로 굽기를 아홉 번, 마지막 아홉 번째 가서는 1천도 이상 센 불에 녹여낸 인산염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아홉 번 굽은 인산염. 세 번 굽은 김장용 인산염.

150년을 잇는 '약소' 전갈의 덕
통신판매/인산가 736-3171
전화로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불교 성지 순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팔 11일
출발: 12월 16일, 1월 13일, 1월 27일
동참금: 165만원
일정: 서울-델리(1박)-데리-발라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프, 나란다-파르나(1박)-바이살리, 루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두(1박)-싱가폴 경유-서울
특정: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캔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출발: 12월 16일, 1월 6일, 1월 20일
동참금: 10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른나투와, 시기리아-하바라나(1박)-델라, 아루비하르-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출발: 12월 16일, 1월 27일, 2월 10일
동참금: 140만원
일정: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베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불탑사, 화려 대만 5일
출발: 12월 16일, 1월 13일, 2월 3일
동참금: 68만원
일정: 서울-타이베이(1박)-고을(1박)-화련(1박)-타이베이(1박)-서울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출발: 12월 11일, 1월 22일, 2월 12일
동참금: 85만원
일정: 서울-덴파사(2박)-푸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혜초 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 544-1533

여객조건
·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 최소 출발 인원: 10명